

넓은 양곡창고를 소공연장으로

순창군, 지역농협과 협의 통해 매입 후 지난달부터 착공
총 사업비 10억원 투입 밴드연습실·영상제작실 등 구성

순창군이 기존 양곡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소공연장으로 새롭게 변모시킨다. 군은 지난해 지역내 문화예술동호인과 청소년들의 문화욕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활동할 공간 마련을 고심한 끝에 양곡창고였던 순화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 공연장을 만들기 결정했다.



소공연장으로 리모델링된 양곡창고.

군은 지난 1월 순창농협과 협의를 통해 매입을 완료했다. 지난 6월에는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용역까지 완료하고, 건물에 대한 안전성까지 확보해 지난달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받을 수 있어 군이 부담해야하는 예산도 대폭 줄었다. 이번 소공연장 조성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이 공간은 330㎡ 규모로 소공연장(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영상제작실 등을 구성하여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조성공사는 폐산업시설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의해 국비 5억원까지 지원

특히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청소년들도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활동할 공간이 필요했다.

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를 분출할 공연장이 관내에 있긴 하지만 40석 규모의 공연장 한 곳과 150석 규모의 공연장은 각각 규모가 크고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불편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소공연장은 읍내에 위치하면서 반경 500m내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장소로 꼽히고 있다.

소공연장 공사는 5개월간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소공연장을 개관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소공연장 조성으로 대규모 공연 유치 외에도 연극이나 인형극 등 소규모 공연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관내 문화예술 다양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숙주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문화예술 분야가 대폭 축소되어 지난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볼 수 있었던 군민들의 불편함이 많다"라면서 "내년에는 감염병 종식으로 소공연장을 통해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원형 기자

찬란한 음색 화려한 기교 품격있는 매너

군산대 이현주 교수
플루트 독주회 성료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이현주 교수가 2일 저녁 7시 30분 군산 동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플루트 독주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은 ▲소피아 구바이둘리나의 숲의 소리(Sounds of Forest), 알레그로 루스티코(Allegro Rustico)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플루트 소나타 94번 ▲알프레드 슈니트케의 옛날 스타일의 조곡(한국 초연) ▲테오발드 뱀의 그랜드 폴로네이즈 16번으로 꾸며졌다.

이현주 교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이지만, 침체된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온라인 실황 공연 독주회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이번 연주회는 러시아 작곡가 작품 중 플루트를 솔로 콘서트 악기로 자리매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 작품들을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교수의 연주회는 온라인(https://www.youtube.com/watch?v=hQVtqMPC08)으로 생중계 됐다.

이현주 교수는 세계 4대 플루트 콩쿨 중 하나인 프랑스 장-피에르 람팔 국제콩쿨에서 가장 미래가 촉망되는 신진 연주자에게 주는 상을 수상했으며 찬란한 음색, 화려한 기교, 품격있는 매너로 독보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2013년 시작된 기획 독주회 시리즈(Chronicle Series)를 통해 '새로움에 대한 배움과 익숙함에 대한 즐거움'을 모두로 다양한 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소개해오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그 8번째 시리즈로 '아이덴티티'를 주제로 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동우문화재단 아트홀서
공연은 온라인으로 생중계
2013년 시작된 기획 독주회
8번째로 주제는 '아이덴티티'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2일 열린 경력단절예방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없는 전북 만들기 선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비대면 온라인 포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윤애 센터장)는 2일 무관중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한 '경력단절여성 없는 전라북도 선언'과 '경력단절예방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온라인 포럼과 선언문 선포는 오는 7일 경력단절 예방의 날을 맞아 가정에서는 육아와 가사분담, 기업에서는 일·생활 균형 근무여건 마련 및 유리천장 해소, 사회에서는 성차별 해소를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없는 전북 만들기에 협력하고 동참하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포럼에 앞서 이뤄진 '경력단절 여성 없는 전라북도 만들기 선언문 선포는 전북도를 비롯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고용노동지청 전

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북경영자총협회, (주)제논전장, (주)윌릭스, 도내 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총 15개 기관, 협회, 기업이 참여했다.

경력단절여성 없는 전라북도 만들기 선언문 선포에 참여한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오택림 국장은 "전북도 경력단절여성의 수는 2018년 4만8,000명에서 2019년 3만9,000명으로 감소했고, 전국적으로 8%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어찌 보면 반가운 일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력단절 사유가 기존 결혼이나 임신, 출산보다는 양육에 의한 것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라 생각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력단절여성 없는 전북 선언 및 온라인 포럼'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718)으로 문의하면 된다./장은성 기자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
예술인 의료비 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2020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대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예술 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안내 및 신청 대행은 11월 6일까지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진행하며,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2020년 소득 합산금액이 80% 이하이며, 지역별 재산 기준 1억 1,800만원 이하인 예술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300만원으로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허위난치질환 등) 중심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단, 질환·부상 정도가 중해 고액의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 사업은 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 적합 여부와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3인)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 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심의한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예술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